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앞장에 설 일념으로

김 일 성 종 합 대 학 평 양 의 학 대 학 교 원 , 연 구 사 들

엄마선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안팎으로 '면모'와 '성격'을 갖춘 천재로 육성하는 일신대학원은 우려는 광장의 일군들로부터 뛰어난 청진을 받게 되었다.

우리 광장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의 일군들과 교육원, 연구사들은 네리 소개해 주십시오. 광장종업원들의 한결 같은 심정입니다.

광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잊지 못해하며 손꼽아 기다리는 교육원, 연구사들은 이들은 본래 누구이며 여기에는 어떤 가슴트러스트 사연이 있었던가?

하여 우리는 광장에 대한 취재길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으로 이어가게 되었다.

위 대 한 명 도 자 김 정 동 토지 께 서는 다음을 꽈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교원들은 참다운 교육자, 과학자의 깨끗한 향기를 가지고 당당하고 청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인재양성과 과학발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목록화 내려야 하며 우리 당의 교육전사로서의 영예를 빛내야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의 어느 한 방에서는 대학책임일군들의 친가에 퇴회했다.

도의 문제는 고려약용산부문에서 전국의 앞장에 선 천진하고

온갖 기쁨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기쁨을 품고 있다.

